

하오징팡(郝景芳)의 『접는 도시(北京折疊)』를 통해 본 이동과 ‘정치’의 관계

김 봉 연

(송실대학교 연구중점교수)

◆ 국문초록

본 글은 중국의 과학작가 하오징팡의 소설 『접는 도시』가 보여주는 시공간의 분리에 따른 ‘미래’ 베이징의 모습을 통해 이동과 정치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작품은 시공간을 분할하고 이동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치안의 상태를 유지한다. 치안은 개개인이 말하고 느끼며 생각하는 방식을 지정하고 각 장소에 알맞은 말과 행동을 부여함으로써 공동체내 개인의 자리와 직무를 위계적으로 분배한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고정된 정체성과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여 사회 내 변수를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치안의 체계와 불화하면서 균열과 틈새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정치’라 했을 때, 이동은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중핵이라 할 수 있다.

이동은 사회계약학을 요구하는 본연의 속성을 지닌다. 이동에 따른 이질적 요소의 유입과 사회변화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체제 유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이동은 치안에 의해 배제되고 가려졌던 자들을 불러내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시하며 그 계약을 관철시켜 다른 시스템을 생산하는 일련의 ‘정치’ 과정이다. 그것은 공동체내 역학관계를 재편하고, 자원과 정보 배분을 조정하는 일이다. 『접는 도시』는 이 ‘정치’의 과정을 알려줄 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작품 속 라오다오(老刀)는 기존 삶의 형태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과학의 상상력으로도 ‘지금 이곳’의 체제는 견고하고 개인이 구조적 미망에서 벗어나기에 일상의 버거움은 감당하기 어렵다.

주제어 : 장소, 정치, 공간분리, 경계, 치안, 이동

1. 들어가는 글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되 다른 세계, 혹은 가능한 세계를 다루는 SF¹⁾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지만 그 조건에 갇히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방법들도 SF 세계에서는 실험이 가능하고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있다. 지금보다 한 발짝 나아간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고, SF는 이것을 하기에 좋은 장르이다.”²⁾

다른 한편으로, SF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 속에는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도시이거나 외계 존재도 등장한다. 첨단화된 과학이 그려내는 미래가 유토피아이건 반대로 기술이 인간을 억압하는 디스토피아이건 현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문제를 예리하게 빚대고 있기 때문에 체감상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지금 여기와 멀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과 기술상의 발견이 인간의 사회생활과 일상세계에 널리 있는 진정한 모순과 긴장에 대해”³⁾ 살피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복잡하게 연루된 다른 세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일이다.

‘지금 여기’가 아닌 ‘언젠가의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SF는 시대와 장소, 심지어 인칭까지 넘나들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창조한다. 도래할 미래에 대한 상상, 현실에 대한 경험과 감정, 과학적 지식과 논리가 접목되어 펼쳐지는 이야기는 세계에 대한 분노와 절망, 인간에 대

1) 오랫동안 SF는 ‘공상’과학소설로 칭해졌다. ‘공상’이라는 단어의 ‘비어있고 헛된’ 표면적 의미는 현실과 거리가 먼 소재를 다루거나 일어날 수 없는 근거 없는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SF가 근거 없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지금 이곳 너머’를 말하는 장르이지만, SF를 쓰고 즐기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에 빗겨 서 있지 않다.

2) 「이곳 너머를 말하는 SF 지금 여기에 우뚝 서다」, 『시사HN』, 643호, 2020. 1. 14, 63쪽.

3) 세릴 빈트 지음, 전행선 옮김, 『에스에프 에스프리-SF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들』, 파주: 아르떼, 12쪽.

한 불신과 비관을 드러내거나 반대로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희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어떤 시선이라도 SF의 '언젠가의 어딘가'는 '지금 여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른 시공간을 상상하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중국의 신세대 과학(科幻)⁴⁾작가인 하오징팡(郝景芳)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만약 소설공간을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으로 분류한다면, 순문학 혹은 주류문학은 현실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표현한다. 과학 혹은 기환문학은 가상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을 표현한다. [...] 이 두 순수한 문학형식에 대응하는 것은 양자 사이에 모호하게 개입된 문학형식이다. 이 형식은 현실공간에 관심을 가지되 가상의 공간을 표현한다. [...] 이 문학형식은 가상공간 속의 강약승패가 아니라 현실과 같지 않은 형식으로 현실의 어떤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관심이 있다.”⁵⁾

하오징팡은 류츠신을 이어 휴고상을 받은 중국의 유력한 과학소설 작가이다. 수상작인 『접는 도시(北京折疊)』(2012)⁶⁾는 미래에 옮겨놓은 현실을 핏진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가상의 미래 베이징에서는 인구의

4) SF의 중국식 표현인 과학은 장르의 혼종성이 강한 중국소설의 특징을 보여준다. 과학과 판타지를 분리하는 서구와는 달리 중국은 과학과 판타지의 혼종적 성격을 의미하는 이 명칭으로 SF소설을 칭한다. 자세한 것은 권혜진, 「중국 과학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관한 小考」(『중국어문학』 제80집, 2019)를 참조할 수 있다.

5) “如果我們將小說空間分爲現實空間和虛空空間，那麼純文學或者主流文學關心現實空間，也表達現實空間，而科幻或者奇幻文學關心虛空空間，也表達虛空空間。[...] 而與這兩種純粹的形式相對應的，是一種介於二者之間更模糊的文學形式：它關心現實空間，却表達虛空空間。[...] 它所關心的並不是虛空世界中的強弱勝敗，而是以某種不同於現實的形式探索現實的某種可能。” 郝景芳，『去遠方·前言』，南京：江蘇鳳凰文藝出版社，2016年，2쪽.

6) 이 작품은 郝景芳，『孤獨深處』(南京：江蘇鳳凰文藝出版社，2016)에 수록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고독 깊은 곳』(강초아 옮김, 서울: 글항아리, 2018)에 「접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베이징을 세 공간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라 돌아가면서 접는다. 땅 위에 있는 시간은 매 공간이 다르며 한 공간이 땅 위에 있는 동안 다른 공간은 접혀져 땅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캡슐 속에서 분사되는 수면가스를 마시며 잔다. 사람들은 빈부, 경제력, 정보력, 학력에 따라 각 공간에 배분되었고, 공간 사이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다.

「접는 도시」를 SF로 읽을 수 있는 근거는 고도화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문학 텍스트를 ‘과학소설’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 텍스트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자, 동시에 이 장르의 경계와 다른 장르와의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꾸는 일”⁷⁾임을 상기할 때, SF라는 장르에만 귀속시킬 수 없다. 이 소설은 현실을 날선 눈으로 바라본 세태소설이자 현실의 빈부격차를 첨예하게 빚던 르포르타주로도 볼 수 있다.⁸⁾ 도시가 접히는 가상공간 베이징은 심각한 빈부격차를 보이는 중국을 예리하게 겨냥한다.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원래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이 소설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장소를 사는 이들을 명징하게 대비시킨다. 거주민 모두에게 베이징이라는 공간은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삶의 조건과 맥락에 의해 각기 다른 장소⁹⁾가 만들어진다. 풍족한 자본과 정보, 자원과 온전한 24시간이 주어진 제1공간과 생존을 위한 최

7) 세릴 빈트 지음, 앞의 책, 29쪽.

8) 任冬梅는 「從科技現實主義角度解讀『北京折疊』」(『南方文壇』, 2016, 6)에서 「접는 도시」를 비롯한 하오징팡의 소설을 ‘과학현실주의(科技現實主義)’라 명명한다. 보통 과학의 외피를 입고서 현실의 암흑함이나 부조리를 드러내는 소설을 지칭한다.

9)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라면 장소는 공간을 체험하는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오토 프리드리히 볼노 지음,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서울: 에코리브르, 2011, 25쪽 참조)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장소는 공간과 대조적으로 정치화되고 문화화되어 있”(존 애드슨, 이영민, 이종희 옮김, 『문화·장소·흔적』, 한울, 2013, 74쪽.)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를 공유하는 구성원은 각자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도 동일한 체험과 기억을 향유할 수 있다.

소한의 조건과 밤10시부터 새벽6시를 사는 제3공간의 삶은 동일할 수 없다. 베이징을 접는 시스템의 원리에 따라 거주 공간과 방식, 양상이 구별되며 서로 간에 뚜렷하게 다른 인간 부류가 생성된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형태의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자신을 규정한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되며, 다른 공간과 세계를 접하면서 확장되고 변화한다. 『접는 도시』는 공간 분리와 이동 제한으로 한 개인의 세계를 축소시키고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박탈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제한된 장소는 고정된 사고방식을 배태하기 쉽고 정보의 취합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장소성이 특정한 장소를 둘러싼 환경, 사회, 가치관, 체제, 이념을 받아들이는 과정¹⁰⁾이지만, 이는 반드시 '정주'의 상태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을 통해 나의 반경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장소성은 한 개인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각인된다. 요컨대 장소성은 이동의 제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며, 관계는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을 통해 확장되고 변화 발전한다. 소설 속에서 제3공간에 사는 라오다오(老刀)는 금지를 깨고 제1, 2공간으로의 이동을 통해 철저히 분리된 사회구조를 확인하고 의심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알게 된다.

시대를 향한 작가의 시선은 견고하다. 작품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전지구적 이야기를 SF장르의 문법 속에서 재구성한다. 아울러 사회적 구조와 파장에 집중하고 그 속에 연루된 인간들의 행위를 관찰한다.¹¹⁾ 그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사회구조와 공간이 안정과 정상성의

10) 에드워드 렐프 지음,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2005, 20-21쪽 참조

11) 『접는 도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빈부격차와 양극화에 대한 우연으로 집약된다. 대표적으로 任冬梅, 「從科幻現實主義角度解讀『北京折疊』」(『南方文壇』, 2016, 6)은 이 작품을 과학의 외피를 쓴 현실의 빚진한 모사라 평한다. 曾軍, 「『北京折疊』的善治寓言和郝景芳的烏托邦想像」(『創作與評論』, 2016年 第24期)는 접히는 베이징이 상징하는 유토피아가 실은 디스토피아에 다름 아님을 지적한다. 한편, 작품이 보여주는 시공간의 의미에 집중하는 글로 劉漢波, 「流浪的異托邦—郝景芳科幻小說論」(『揚子江評論』, 2017年 第1期), 권혜진, 「사라진 정치 문화적 상상 —

위치에 있는 것인지 차별과 배제가 내면화된 것은 아닌지를 묻는다. 나아가 그것을 안정과 정상성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추적한다. 제한된 재화와 정보 속에서 모멸과 불안을 지닌 채 일상의 공간으로 내몰리는 개인은 세계 최고의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는 중국 현실과 맞물린다.

한편, 「접는 도시」는 시공간을 분리시키고 이동을 금지하는 정주의 방식으로 치안의 상태를 공고화한다. 랑시에르는 치안을 “행위 양식들과 존재 양식들 및 말하기 양식들”¹²⁾이라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치안은 개개인이 말하고 느끼며 생각하는 방식을 지정하고 각 장소에서 그에 알맞은 말과 행동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로 결집하여 자리와 직무를 위계적으로 분배”¹³⁾함으로써 개인에게 고정된 정체성을 주입하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다. 개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 개인은 치안의 형태를 내면화, 일상화하고 자신의 다른 가능성을 쉽게 타진할 수 없게 된다. 랑시에르는 이러한 치안의 짜임과 단절하여 각 개인에게 부여된 자리와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정치’라 명명한다. ‘정치’는 기존 치안의 체계와 계속 ‘불화’하면서 균열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치안이 각 개인에게 부여했던 자리와 용도를 변경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에 따라 치안에 의해 부정되었던 다른 정체성을 찾고 보이지 않았던 존재와 장소를 발견할 수 있다.¹⁴⁾ 작품 속에서 치안의 체

『北京折疊』과 『弦歌』 속 시공간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中國學報』 제88집, 2019) 가 있다. 전자는 시공간의 구분이 인간 삶과 존재형태 또한 분리한다고 주장하며, 후자의 연구는 「접는 도시」가 전통적인 사회구조의 갱신을 지향하는 근대성에 반하는 지점에서 근대성의 모든 양상이 집약되는 ‘시간과 공간’의 양상을 통해 소설의 현재적 의미를 되새긴다.

12) 자크 랑시에르 지음, 진태원 옮김, 『불화』, 서울: 도서출판 길, 2016, 63쪽.

13) 자크 랑시에르 지음,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16, 112쪽.

14) 이와 함께 랑시에르는 ‘정치’를 통해 “보일만한 장소를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고, 오직 소음만 일어났던 곳에서 담론이 들리게 하고, 소음으로만 들렸던 것을 담론으로 알아듣게 만”(자크 랑시에르 지음, 진태원 옮김, 앞의 책, 같은 곳) 든다고 말한다. 이는 사회에서 치안의 논리를 통해 은폐되고 부재된 존재들

계는 이동 제한이라는 조건에 의해 공고화되고 개인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본다면 이동은 치안에 균열과 틈새를 만들고 다양한 장소성과 정치성을 만들어내며, 바로 그 행위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정치’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접는 도시」가 보여주는 시공간이 분리된 ‘미래’ 베이징의 사회적 현실적 조건 아래서 일상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관찰하는 한편, 작품 속에서 치안의 방식이 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던 라오다오에게서 기존 치안에 균열을 가하는 ‘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동¹⁵⁾이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소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분리된 공간을 통한 ‘조화’로운 사회 건설

접혀진 베이징은 단순히 사건이 벌어지고 인물들이 움직이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작가가 바라보는 시대적, 개념적 공간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를 구성한다.¹⁶⁾ ‘접는다’는 동사는 행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도시가 왜 접히고 그로인해 어떤 상황이 연출되며 파생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이 단어 안에 녹아있다. 접는 도시가 상징하는 의미와 효과는 이 작품의 중핵이자 현실과 미래를 향

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정치’의 주제로 재탄생할 수 있는 몫을 부여하는 뜻으로 새길 수 있다.

15) 본 글에서 이동은 ‘움직임’ 혹은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뜻하는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이동 그리고 인간 존재로서의 이동 속성과 그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6) 이는 “내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플롯이 아니다. 나는 추상화된 의미와 상징에 매혹된다.” (하오징팡 지음, 강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파주: 글항아리, 2019, 7쪽)라는 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 작가의 준엄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미래 도시 베이징은 넘쳐나는 인구와 거주지 부족 사태에 직면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의 힘을 빌어 베이징을 접어서 거주공간과 인구를 나눈다. 곧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게 하여 좀 더 쾌적하고 효과적으로 도시를 관리한다.

‘접는 도시’는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대지의 한쪽 면은 제1공간이고 500만 명이 산다. 할당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다. 제1공간이 휴면에 들어가면 대지가 뒤집힌다. 대지의 반대쪽은 제2공간과 제3공간이다. 제2공간의 인구는 2500만 명이고 둘째날의 아침 6시부터 밤 10시가 할당된다. 제3공간에는 5000만 명이 살고 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의 아침 6시까지를 산다. 그런 다음 제1공간으로 들어간다.

각 공간의 할당 시간은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방식으로 분배되었다. 500만 명이 24시간을, 7500만 명이 그 다음 24시간을 사용한다.¹⁷⁾

접는 도시 베이징은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1공간은 24시간이 주어지고 인구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제2공간과 제3공간은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24시간을 나눠서 쓴다. 인구의 수도 제1공간에 비하면 월등히 많다. 세 개의 공간은 효과적인 관리와 통치라는 측면에 입각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배치되었다. 각 공간을 구성하는 인구의 수와 배분된 시간은 사회적 계층과 권력을 상징한다. 제1공간에는 ‘온전한’ 하루가 주어지는 반면, 제2, 3공간은 더 많은 수의 인구가 더 적은 시간을 살아간다. 과학의 힘에 의해 도시를 접는 획기적인 방법이 실행되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히 그들이 사는 공간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자의 시공간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드러내는 일종의 ‘신분’이 되었다.

17) 하오징팡 지음, 양초아 옮김, 『고독 깊은 곳』, 서울: 글항아리, 2018, 22쪽. 이하 작품 인용 시, 작품 제목인 「접는 도시」와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이곳에서는 “존재의 자리가 존재의 가치로 확정”¹⁸⁾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곳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자신이 바라보는 혹은 욕망하는 곳은 행동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나를 정의하는 것은 내가 속한 그 자리가 된다. 사회 저층인 3공간에서 다른 거주공간으로의 이동은 좋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지만 선별된 몇몇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뿐이고, 이 또한 개인의 능력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¹⁹⁾ 이는 제3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과거가 소멸되고 미래가 취소된 현실에서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들려 표현한다.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뿐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 이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많은 정보와 자본의 욕망 속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의지는 애초에 차단된다. 도시가 접히는 것은 ‘원래부터 그렇기’에 행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품을 수는 없고, 삶이 개선되거나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어렵다.

라오다오는 어려서부터 제3공간에서 살았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평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안다. 그는 쓰레기 처리공이다. 28년간 이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의의도 느끼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삶이 허무하다는 회의감에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변함없이 누추한 생활의 틈새에서 한 구석을 점유하며 살 것이다.²⁰⁾

잡는 도시 베이징은 라오다오(老刀)의 아버지와 같은 건설노동자의 피땀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작 그 도시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18) 정지연, 「시네필, 시대를 응시하다」, 『씨네 21』 제1243호, 2020. 2. 18, 57쪽.
19) 이는 마치 베이징과 상하이의 후커우를 얻기 위해 중국 정부가 내세운 조건과 흡사하다. 정부가 내세운 조건에 부합하는 소수에게만 도시의 후커우를 제공한다는 정책은 후커우제도 자체의 모순점을 은폐하고 개인의 노력과 능력부족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0) 「잡는 도시」, 23쪽.

제한적이었다. 라오다오가 사는 제3공간은 제1, 2공간에서 온 쓰레기를 분류하거나 “옷이나 음식, 연료, 보험 등을 팔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산다. 이곳은 다른 공간 사람들의 부산물로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제1공간에 사는 기술과 정보, 자본의 소유자와 2공간에서 생활하는 대학생과 중견기업 노동자들의 쓰레기가 이들의 월급봉투가 된다. 그들은 제1, 2공간의 삶을 선망하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을 체감할 뿐이다. 이들 삶에 사건²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격변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사건은 이야기에 부피와 실감을 부여하고 사건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인물의 성격을 통해 현실의 입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접는 도시」는 주인공 라오다오가 겪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 분리된 시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단절된 인간관계와 계층의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여느 날과 같이 쓰레기를 분리하던 라오다오는 자기가 사는 제2공간으로 와서 부락을 들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쪽지가 들어있는 유리병 하나를 발견한다. 자신의 딸을 좋은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싶었던 그는 제2공간으로 가기 위해 한때 다른 공간을 오가서 밀수를 했던 평리(彭蠡)를 찾아간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구금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오다오는 평리가 넘나들었던 쓰레기 이동로를 따라 2공간으로 간다. 그곳에서 만난 대학생 친텐(秦天)은 어느 학회에서 만났던 제1공간에 사는 이연(依言)에게 자신의 연서를 전해주고 답장을 받아오면 10만위안을 주겠다고 말한다. 라오다오는 돈을 벌기 위해 다른 공간으로 갔지만 자신이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두 세상과 부딪히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접는 도시 베이징의 운영원리에 다가간다.

기술적인 ‘유토피아’인 베이징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공간에 의해 표현된다. 접는 도시 베이징은 자본과 정보가 권력이 되고

21) 대체불가능하고 반복불가능한 일회성의 경험, 그리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현저히 바뀌는 경험을 사건이라 칭할 수 있다면, 제3공간은 자본, 정보, 자원의 제한으로 제1, 2공간 보다 사건 발생의 빈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소유한 자, 소유하려 애쓰는 자, 소유하지 못한 자가 분리되어 감시받고 생활하는 철저한 계층 사회를 구현한다. 제1, 2 공간의 자본, 기술, 정보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도시가 접히고 시간이 분리되면서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차단된다. 각 공간간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 공간이 각각의 계층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이는 계층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비록 세 공간, 곧 사회계층 사이에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일종의 유동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 빈도와 강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친텐의 부탁을 받고 제1공간으로 간 라오다오는 감시시스템에 노출된다. 1공간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통제에서 벗어난 인간, 제1공간의 동질성을 해하는 위협 요소로 간주된다. 그를 곤경해서 구해준 이는 제3공간에서 제1공간으로 이동한 입지적인 인물인 거다핑(葛大平)이다. 그는 사관학교 출신에 레이더 기술을 관장하는 대령이었다. 하지만 제3공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기에 더 이상 진급할 수가 없었고 전역을 신청한 후 제1공간의 정부관련 일을 하는 '고급블루칼라'가 되었다. 그는 군대에 있었고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나마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주특기인 레이더 기술을 관리하는 일은 할 수 없고 정부에 물자를 조달하거나 정부회의의 관련 행사 준비를 담당할 뿐 '고급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작품에서 공간 이동은 계층 상승의 알레고리로 읽힌다. 베이징의 세 공간은 각 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정보, 기술의 고정화 방식을 통해 설계되었다. 이는 일종의 권력이 되어 그 유무에 따라 각 공간을 특화시킨다. 곧 제1공간은 자본, 정보, 기술의 독점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권력이 집중되며 고정되고 정형화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²²⁾ 사람들

22) 이처럼 소설이 보여주는 '정체'화된 세계의 반대 개념은 '유동화' 또는 '액화' 세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고정화, 정형화, 균질화 할 수 없는 현대 사회를 지칭하는 말로 환언된다. 『접는 도시』에서 세 공간은 현대를 개념화하는 유동성이 제거된 후 재편된 상황으로, 혹자는 이를 '근대성의 이면'이라 칭한다.(曾軍, 『北京折疊』의善治寓言和郝景芳的異烏托邦思想, 『創作與評論』, 2016年 第24期, 42쪽.)

이 이동하지 않으면 이들의 자본, 정보, 기술도 흐르지 않는다. 법으로 금지된 이동은 제1공간에 집중된 권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철저히 분리된 사회를 지향하는 ‘접는 베이징’의 통치원리이다.

공간이 접히면서 도시 공간의 효율은 높아졌지만 사회의 유동성은 사라졌다.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이동을 막으면서 지배체제는 공고화되고 사람들은 감시와 처벌의 치안형태를 내면화한다. 공간의 분리는 이동의 불가능성을 배태하고 치안은 이를 통해 조화, 동일화, 균질화를 도모한다. 치안이 부여하는 고정된 정체성은 개 개인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배제하면서 이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주조한다.

살아있는 존재들의 이동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삶이란 어떤 방향으로의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동은 자기의 현실적 위치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그러나 접는 도시 베이징에서 이동은 지연되거나 지체되고 아예 그렇게 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동의 불가능 속에서 소통과 공감, 연대와 혼종성의 여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작품은 공간 구획에 따른 사고와 생활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주어진 조건을 내면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들추어낸다.

III. 통치 시스템에 대항하는 ‘정치’

접는 도시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구획된 공간에 거주한다.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다. 그들은 경계의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예전부터 그래왔으니 지금의 삶의 방식도 다를 것이 없으며 앞으로의 삶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라오다오는 제2공간과 제1공간에서 질서정연함과 해돋이의 강렬함을 느낀다. 이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제3공간에서 가질 수 없었던 감정이다.

라오다오가 제2공간에서 본 마지막 기억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의 우아함이었다. 아파트의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모든 것이 부러울 정도로 질서정연했다.²³⁾

라오다오는 단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다. 태양이 천천히 솟아오른다. 하늘 끝은 아득하고도 순수한 파란빛을 띠고 있다. 파란 빛깔 아래로는 열은 주황색이 이어진다. 비스듬히 위로 솟구치는 듯한 길쭉하고 얇은 구름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다. 태양이 어느 건물 귀퉁이에 가려졌다. 그러자 건물의 그 부분이 이상할 정도로 새카맣게 보였고, 건물 뒤로 눈이 멀 듯 한 빛이 비껴 있다. 태양은 점점 떠오르고, 하늘의 파란빛은 차차 열어진다. 열어지는 대신 더욱 평온하고 맑다. 라오다오는 일어서서 태양 쪽을 향해 뛰었다. 그는 그 희미해져가는 금빛을 붙잡고 싶다고 생각했다. 푸른 하늘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의 심장이 두방망이질 쳤다. 일출이 이토록 매혹적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²⁴⁾

그가 사는 제3공간에서는 일출의 장엄함과 강렬함을 경험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되었던 하루 24시간은 공간에 따라 쪼개진다.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집는 도시에서 온전히 24시간을 사는 계층은 자본, 지식, 정보,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제1공간의 사람들이다. 권력자들은 정보와 자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체제의 견고함을 유지한다. 라오다오는 거다핑을 따라 들어간 ‘집는 도시 50주년 기념행사’에서 도시운영의 책임자인 백발노인과 실무자인 우원(吳圓) 사이의 쓰레기 처리 자동화에 대한 설전을 듣는다.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노동력을 줄이자는 우원의 주장에 대해 백발노인은 수천만 명의 쓰레기 처리공의 실직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반론을 펼친다. 자신의 처지와 관련된 일임을 직감한 라오다오는 이 문제에 대해 거다핑에게 물어보고, 그는 은연중에 도시

23) 「집는 도시」, 32쪽.

24) 「집는 도시」, 33쪽.

운영원리를 알려준다.

“알겠나?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사람들의 생활시간을 철저히 줄이고 그런 다음 그들에게 할 일을 찾아주는 것이었지. 이해하겠나? 밤 시간에 사람들을 몰아넣었다는 말이야. 이 방법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뭘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사회 하층계급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야.”²⁵⁾

임금상승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실업률도 덩달아 상승한다. 높은 실업률을 감당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렸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실업률, 대출이라는 삼중고에 처하고 도시 전체는 활력을 상실한다. 이에 베이징은 ‘어떤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 삶의 시간을 빼앗고 노동의 시간만을 부여한다. 그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지 못한다. 높은 실업률과 물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낮 시간을 산다. 이들은 국가총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로서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존재들이다. 도시에 기여를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차단당한 채 주어진 노동의 시간만을 영위한다. 베이징을 접어 시공간을 분리하는 이유는 수직화된 도시의 순위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기 위함이다.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폭 감소시켰지만 그로 인해 인간의 가치 또한 몰락했다. 한정된 공간을 접으면서 효율은 높아졌지만 사회의 흐름은 막혔다.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이동을 막으면서 지배체제는 공고화되고 사람들은 감시와 처벌의 치안형태를 내면화한다.

베이징이 시공간을 분리시켜 얻어낸 또 다른 효과는 동일화, 동질화이다. 구별된 공간에 존재하는 이들은 각자의 제한된 정보와 재화 속에서 쉽게 동일화된다. 공동체는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동일하

25) 「집는 도시」, 57쪽.

게 만들면 그 속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은 쉽게 예상하고 대처 가능하다. 작품에서 개별성, 고유성, 특수성이 제거된 동질화된 세계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는 이동의 금지이다. 치안의 명령체계는 동일화, 동질화, 조화를 목표로 진행된다. 이 기표 속에서 배제와 차별은 은폐되고 사람들은 '조화로운 사회'라는 치안이 부여한 정체성 속에 살아가기를 강요받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조건에 대한 의심과 고민 대신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한편, 치안의 원칙은 개인을 획일적이고 고정화시키며, 특정한 지위를 부여한 국가가 섰한 집단의 일부분으로 호명한다. 이와 불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존 섰법에서 제외된 이른바 의외의 상태, 곧 예외 상태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기존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이들의 자리를 환원한다. 이는 하나의 '사건'으로 명명되며 재현과 대체가 불가능한 일회성의 경험이다. 부연하면, 고정적인 존재도 아니고 특정한 집단의 부분도 아니며 기존의 통치관념에서 벗어난 행위들이 사회에 명령규칙에 균열과 틈새와 공백을 가져오는 그 과정 자체를 '정치'라 사유할 수 있다.²⁶⁾ 때문에 기존 지배질서와 규칙들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동질화를 추구하는 세계와 협력과 거래, 이에 대한 반발과 목살을 통해 강제된 것일지도 모른다. 작품에서 라오다오가 자신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 대해 사유하고 주어진 명령체계에 대해 재차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여지는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가 우연히 발견한 유리병은 그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했다. 비록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제1, 2공간으로의 이동은 그에게 접는 도시가 가진 치안의 원리를 인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경험이 그에게 기존 통치에 균열과 틈새를 가하는 '정치'의 행위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는 이동을 통해 자신이 이 도시에서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어렵פות하게 인지한다.

26) 차슬기, 『강경에 소설의 정치성 연구』, 이화여대 국문과 석사학위 논문, 2017, 18쪽 참조.

그는 자신이 여전히 숫자라는 것을 알았다. 5128만, 이 숫자 속에서 그는 단지 평범한 하나다. 만약 공교롭게 5000만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 128만 중의 하나로 태어나 반올림을 당한다면 존재한 적도 없는 것처럼, 한줌 흙만도 못했을 것이다.²⁷⁾

이동의 금지는 인간이 살아오면서 구축한 경제적, 사회적, 물질적 자원의 교류도 차단한다. 이에 따라 공간의 동질화가 용이해지고 차이와 이해에 따른 갈등과 충돌의 여지도 줄어진다. 거주 공간은 타인과 긴밀하게 연루되어 있고 개인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장소성을 획득한다. 이는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형성되고 소멸되는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다. 거주 공간의 분리는 타인과의 관계 분리를 의미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감정의 생산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명령규칙이나 구호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고정되고 안정되며 불변하기를 바라며 개인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치안과 불화하고 불일치하려는 움직임이 발견되는 지점이 바로 ‘정치’가 맹아를 피우는 곳이 된다. 일괄적으로 파악 가능한 대상이기를 거부하는 서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존재를 상기시키며 이들을 통해 기존 지배질서를 교란하고 분열시키는 다른 맥락의 ‘정치’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명령규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소환한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며 개인의 고유함과 개별성 또한 그 속에서 발견되고 재현되며 의미를 부여받는다. 개인의 ‘정치’가 발현되고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이어갈 때 전체화, 동일화라는 치안 원칙에 균열이 발생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요컨대 ‘정치’의 효능은 타인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각자가 개별성과 고유성을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간분리를 통해 명령규칙 체계는 공고화되고 각 공간 구성원의 삶도 그에 따라 고정된다. 장소성은 자신과 연루된 관계 맥락을 통해 확보되고 변화하지만, 이동의 제한은 보다 많은 이합집산을 막아 개인이 다양

27) 「집은 도시」, 62쪽.

한 장소성을 획득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장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치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의 안녕과 번영이라는 미명아래 베이징을 감시한다. 라오다오의 공간이동의 경험은 그에게 미약하지만 기존의 명령규칙, 질서체계, 치안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곧 ‘정치’의 의미를 어렵게나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치안이 부여한 고정된 정체성을 거부하고 부조화와 불일치를 지향하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던 인간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IV. 이동을 통한 ‘정치’실현의 (불)가능성

도시가 접히기 시작한 50년 이래로 베이징의 세 공간은 서로 ‘정체’되어 있다. 미래 도시 베이징은 경계가 무너지고 규정할 수 없는 현실의 대척점에 서서 ‘지금, 여기’를 반추하게 만든다.²⁸⁾ 유동성이 제거된 베이징은 자원의 고정화 방식을 통해 계층의 공고화가 치밀하게 진행되는 폐쇄적인 공간에 다름 아니다. 자원과 정보의 제한과 불균등한 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계층 분화는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한 수단이다. 곧 물리적 이동의 금지는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지위와 상황을 공고화시키는 효능을 가져온다. 때문에 작품 속에서 한 개인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가 다른 공간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온전한 장소성을 획득하리라는 보장은 없다.²⁹⁾ 이 사실은 라오다오가 ‘이제야’ 나락에 떨어

28) 기술과 정보의 발달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활용은 일과 놀이의 경계, 노동과 여가의 구분을 무너뜨린다. 인터넷 가상공간은 먼 대면 만남보다 훨씬 빠르게 서로의 정보를 실어 나르고 협업공간이나 공유공간은 장소 개념의 외연을 확장한다. 언제 어디서나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며 현장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 간 것과 다름없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현대 사회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진 복잡다단하고 규정할 수 없는 것들의 집합체이다.

진 것이 아니라 그를 비롯한 3공간에 있는 이들이 ‘이미’ 그 나라의 한 가운데 있음을 환기한다.

정주의 삶은 접는 도시 베이징을 규정하는 구조적 특징이다. 시공간의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각 공간의 사람들이 정형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삶의 질과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정보와 기술, 자본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제1, 2공간에 비해 제3공간은 이 모든 경계 밖에 있다. 소비와 재생산에서 배제당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이 공간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녕 역시 이러한 불안정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³⁰⁾ 불안정성의 증가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제3공간은 도시빈곤층의 주거지로 재개념화된다. 베이징이 접혀진 50년 이래로 지속된 “불평등과 양극화는 서로를 견딜 수 없는 별개의 종(種)으로 만들”³¹⁾었고 서로를 불편한 존재로 각인시켰다. 더구나 유동성을 통한 상호교류와 상호작용도 기대할 수 없다. 1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도맡으며 ‘저급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제1공간에 사는 사람들과 서로 다른 베이징에서 살아간다.

이동은 “단지 사람들이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어떻게 움직이는 방식에 관여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를 통해 자연, 풍광, 도시, 공동체와 같은 환경들이 세워지고 사용”³²⁾되며 이 과정에

29) 이와 같은 이유는 장소성이 “그 장소에 거주,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이들의 의식, 가치관에 따라 (재)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장소성은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인적 정체성이나 이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정체성으로 발전하게”(최병두, 「신자유주의적 도시공간과 대안적 장소 만들기」, 『공간의 사유와 공간이론의 사회적 전유』, 소명출판, 2013, 239쪽.)되기 때문이다. 제1공간으로 이동한 라오다오가 제1공간에 머문다고 해서 그들과 같은 공간감각과 장소성을 획득한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30) 신혜란,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공간과사회』 제27권 4호, 2017, 14-15쪽 참조.

31) 신형철, 「재난 속에서의 웃음, 계획을 가질 권리」, 『씨네 21』 제1243호, 2020. 2. 18, 51쪽.

32) 김수철, 「이동성, 장소, 문화: 미디어공간으로서 서울의 정체성」, 『문화와 정치』 제1권 제2호, 2014, 125쪽.

서 사회문화적 규범들과 질서 또한 만들어진다. 아울러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동일성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보다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재편되는 도시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동과 교류는 한 장소가 가지는 고유함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다른 장소와의 관계에 의해 또 다른 일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화, 동질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가의 시선과도 겹친다. 작품은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로서 잡는 도시를 전면에 내세워 정형화, 폐쇄화되는 공간을 역으로 드러내어 한 개인에게 부여된 장소의 의미와 실천조건을 드러낸다.

이에 더해 작품은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시간의 배분이 사실 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로 이 도시가 철저하게 제1공간을 위해 설계되었고 배제와 분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도시의 운영자인 백발노인은 회의 이틀 후 발표될 선언문에 오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공간전환을 미룬다. 6시에 이루어져야 할 전환이 6시 10분에 시작되다가 그마저도 우원이 중요한 문서가 든 자료의 열쇠를 회의장에 놓고 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전환을 멈추고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6시 30분 우원이 자료 키를 되찾았다. 6시 40분. 우원이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6시 45분 백발노인이 피로에 짓눌려 사무실의 간이침대에 누웠다. 지령이 내려졌고 세계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간다. (중략) 전환이 다시 시작된다.³³⁾

제1공간 관료의 단순한 실수는 제2공간에 사는 2500만 명의 시간을 앗아갔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기기결함으로 생각한다. 하루가 45분이나 늦어졌지만 그들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다. 제2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제3공간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어그러진 공간전환으로 인해 벌어진 땅 사이에 다리가 낀 라오다오는 자신의 이동이 발

33) 「잡는 도시」, 62-63쪽.

각될까봐 전전긍긍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때문에 질서정연함이 주는 우아함과 일출의 숨 막히는 장관을 알게 된 라오다오가 그 경험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가 ‘접는 도시’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가를 모두 파악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또한 구조 자체의 부당함과 불합리함의 맹아가 그의 생각 어딘가에 자리 잡혔다고도 생각하기 힘들다. 작품은 라오다오가 “어떤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느꼈다”는 말로 ‘정치’실현의 가능성을 알려주지만, 곧이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며 체념어린 모습을 보여준다. 견고한 치안체계의 원리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지만 시스템 속 개인은 미미하며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물리적 이동은 가능했지만 그 곳은 자신에게 장소감을 주지 못했고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도 불가능했다. ‘어떤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지만 그것은 도리어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이로써 작가는 이 소설이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이고 “지금까지 불평등과의 전쟁에서 진정으로 승리한 적이 없다”³⁴⁾는 자신의 말을 증명한다.

작가가 가진 불평등과 계층화에 대한 확고한 시선은 작품에서 라오다오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 원인이 이동을 금지시킨 구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식에게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지점으로 이어진다. 라오다오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모순과 모멸을 감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아이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앞선다. 제한된 재화와 자원 속에서 살아가지만, 라오다오에게 그러한 조건이 다른 공간에 대한 적대감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이동의 경험은 단지 자신의 상황을 희미하게 인지하는 정도에서 그친다. 작품 말미 제3공간으로 돌아온 그는 임대주택에서 계약서대로 겨울에 난방비 10퍼센트 더 받는다고 하는 대리인 할머니와 그것이 속임수이라며 싸우는 아베이에게 측은한 마음이 든다.

34) 曾軍, 앞의 논문, 46쪽에서 재인용.

그는 돌연 아베이가 싸우지 않기를 바랐다. 이런 사소한 일을 잊어버리고 더 싸우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아베이에게 여자라면 마땅히 얌전히 앉아서 치마가 무릎 위를 곱게 덮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살짝 미소 지으면서 예쁜 치아를 드러내고, 나긋나긋하게 말해야 사랑받는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아베이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다.³⁵⁾

제3공간의 아베이는 제1공간에서 만난 이옌과 다르다. 임대주택에 살면서 얼마 안되는 난방비를 내지 않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녀는 권력이 남편을 두고 젊은 대학원생에게 마음을 주는 이옌과 다르다. 이옌은 '사랑받는' 여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만, 하루 벌여 하루 사는 아베이에게 그런 모습은 아무런 의미도 도움도 되지 않는다. 라오다오는 아베이를 통해서도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만, 이 희미한 깨달음이 구조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신이 다리는 다쳤지만, 체포되지도 않았고 돈까지 벌어난 행운아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쓰레기장에서 데려온 탕탕(糖糖)을 좋은 유치원에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뜬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점은 라오다오가 현재만 남은 자신의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도 읽힌다. 또는 공고화된 체계에 균열을 가하고 자신에게 남은 미래에 아이에게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뿐이고 미래가 제시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파국을 상상한다. 그의 이동이 상호작용을 담보할 수 없는 물리적 이동에 불과하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거래였지만, 아이의 처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은 자기 스스로 현실의 파국을 피하고 조금 더 개선된 미래를 상상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5) 「접는 도시」, 65쪽.

V. 나오는 글

소설은 현실이 할 수 없는 지점을 상상한다. 그리고 현실 상황에 대한 저마다의 다른 문제의식을 나타낸다. 하오징팡의 소설은 넘을 수 없는 현실의 한계상황에 대한 절망과 한계를 서술한다. 자신이 속한 세계에 분노와 절망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인간과 미래에 대한 불신과 비판 역시 높아져간다. 분노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되지만 반대로 체념의 늪으로 빠져들게도 한다. 어떻게 해도 세상은 바뀌기 어렵고 부당한 일들은 만연하다. 작품은 과학의 상상력을 통해 오랫동안 고정돼 있던 논의를 유연하게 만들어 현실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동이 제한된 미래를 계층화된 현실로 빗대고 차별의 내면화와 일상화가 만연되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이로써 문학과 사회현실이 별개의 지점에 놓여있지 않고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과환은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본다. 지금 우리의 생활과 사회를 돌아보고 예상하는데 유효한 방법으로서 「접는 도시」는 이 때문에 먼 미래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 작품에서 베이징은 구조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계층화된 사회이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생각된 ‘하루 24시간’의 시간 개념마저 파괴된다. 고도로 집약된 과학기술은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으며 이미 주어진 조건과 한계를 더욱 공고화시키는데 유효한 도구가 될 뿐이다. 작품은 당연하고 정상적이라 치부되었던 시공간의 맥락들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하면서, 대다수의 사람에게 속하고 순환된다고 생각되어진 정보의 흐름 이면에 어떤 존재들이 누락되어왔는지를 선명하게 부조한다.

「접는 도시」의 사회구조에 따른 생활환경은 ‘예로부터 그런’ 상태로 이미 주어진 조건과 한계이다. 제1공간은 도시 자원과 권력, 정보의 소유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점한다. 반면 제2, 3공간은 상대적으로 약세이다. 제2공간은 시공간의 분배와 사회구조설계에 있어 중요하고, 제3공

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으면 제1, 2공간으로 들어갈 기회를 획득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공간의 저렴한 서비스 업무만 담당할 뿐, 소속된 계층은 변하지 않는다. 자본과 정보의 선택적 차단과 이동의 금지는 각 공간의 구성원들을 정형화, 동일화시키면서 서로의 거주공간을 공고화하고 서로 다른 별개의 종으로 구분하는 중핵이다. '조화'로운 사회는 각 공간에 제공되는 자본, 정보, 서비스를 적절히 배분하고 통제하면서 이루어지고, 각 공간의 사람들은 도시 운영 시스템을 내면화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한계를 일상화한다. 공고화된 계층사회에서 직업 또한 고정된다. 물리적 이동은 선택받은 소수, 혹은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주어지는 시혜와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뒤집어본다면, 작품은 이동이 동질화에 대항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동은 사회재계약을 요구하는 본연의 속성을 지닌다. 이동에 따른 이질적 요소의 유입과 사회변화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체제 유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이동과 교차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는 개개인의 정치성을 함양하는 토대요소로 작용한다. 이동은 치안에 의해 배제되고 가려졌던 사람들을 불러내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시하며 그 계약을 수행하여 다른 시스템을 생산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정치'과정이다. 그것은 공동체내 역학관계를 재편하고, 자원과 정보 배분을 조정하는 일이다. 작품은 이 '정치'의 과정을 알려줄 뿐 그 실현 가능성의 희박함에 무게를 더 신는다. 작품 속 라오다오는 기존 삶의 형태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지 못했다. 과환의 상상력으로도 '지금 이곳'의 체제는 견고하고 개인이 구조적 미망에서 벗어나기에 일상의 버거움은 감당하기 어렵다.

■ 참고문헌

- 세릴 빈트 지음, 전행선 옮김, 『에스에프 에스프리』, 파주: 아르떼, 2019.
- 에드워드 랠프 지음,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2005.
- 자크 랑시에르 지음, 진태원 옮김, 『불화』, 서울: 도서출판 길, 2016.
- _____,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16.
- 존 어리 지음, 강현수, 이희상 옮김, 『모빌리티』, 서울: 아카넷, 2014.
- 존 어리 지음, 윤여일 옮김, 『사회를 넘어선 사회학』, 서울: 휴머니스트, 2012.
- 김수철, 「이동성, 장소, 문화: 미디어공간으로서 서울의 정체성」, 『문화와 정치』 제1권 제2호, 2014.
- 권혜진, 「사라진 정치 문화적 상상 — 『北京折疊』과 『弦歌』 속 시공간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88집, 2019.
- 엄미옥, 「국경을 넘는 서사와 장소의 정치학」,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1집, 2017.
- 신혜란, 「이동통치와 불안계급의 공간전략」, 『공간과사회』 제27권 4호, 2017.
- 郝景芳, 『孤獨深處』, 南京: 江蘇鳳凰文藝出版社, 2016.
- 劉漢波, 「流浪的異托邦—郝景芳科幻小說論」, 『揚子江評論』, 2017年 第1期.
- 任冬梅, 「從科幻現實主義角度解讀『北京折疊』」, 『南方文壇』, 2016, 6.
- 曾軍, 「『北京折疊』的善治寓言和郝景芳的烏托邦想像」, 『創作與評論』, 2016年 第24期.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ity and 'politics' seen through the *Folding Beijing* by HaoJingfang

Kim, Bongyeon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o establish a correlation between mobility and 'politics'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future' Beijing, following the separation of space and time, as shown in the novel *Folding Beijing* by the Chinese science fiction writer HaoJingfang(郝景芳). *Folding Beijing* maintain a state of security by dividing time and space and prohibit moves to another space. Security hierarchically distributes the positions and duties of the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by designating the way they speak, feel, and think, and giving each place the right words and actions. This eliminates variables in society and aims for a mor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by excluding identity and other possibilities that are fixed to individuals. The act of creating cracks and niches in discord within this system of public security is called 'politics', and movement is the nucleus that makes politics possible.

Mobility has its own nature of requiring social renewal. Incoming disparate elements and social changes resulting from movement cause instability and uncertainty, and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regime maintenance. Changes in systems due to movement and intersection serve as a foundation for fostering individual politics. Mobility is a series of "politics" processes that call out those who have been excluded and overshadowed by public security, present them with new social contracts,

and push through contracts to produce different systems. The work only shows the process of "politics," and is skeptical about its feasibility. Even with the imagination of science fiction, the "Here Now" system is solid and it is hard to handle the daily burden of escaping the structural aspirations of individuals.

Key Words : place, politics, separation of space, boundary, security, mobility

■ 논문접수일 : 2020. 05. 20

■ 심사완료일 : 2020. 06. 09

■ 게재확정일 : 2020. 06. 10